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치료 '길 열리다'

전북대 이용철·정재석 교수팀, 미국흉부학회 논문 발표
미토콘드리아 산화스트레스 억제제 투여 폐 손상 치료 입증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이용철 교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정재석 교수 연구팀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치명적 폐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마커니즘을 규명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호흡기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미국흉부학회(ATS) 산하의 저명한 기초의학연구지널인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Cell and Molecular Biology(AJRCMB, IF 7.48)' 최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역학조사에서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 성분에 노출된 임신부나 영아에서 치명적 폐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됐다. 국내에선 2006년 소아에서 원인 불명의 치명적 폐손상이 처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 기준 사회적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800여명으로, 사망자만도 1,500명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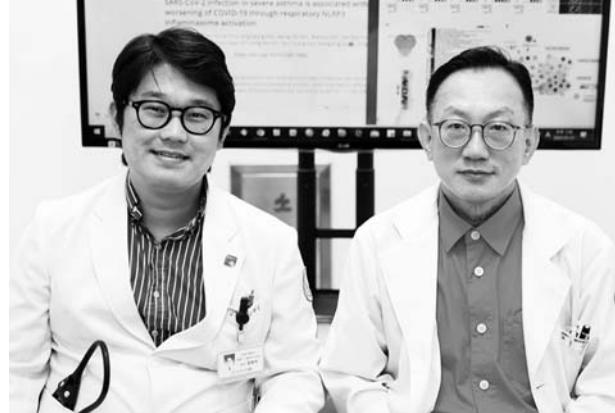
했고, 파악되지 않은 사망 피해자만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이러한 의학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유발 폐 손상 및 폐섬유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돼 왔다.

이에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의 주된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페닐렌 구아네이드'를 마우스 기도에 노출해 가습기 살균제 유발 치명적 폐손상 및 중증 폐섬유화 실험 등을 모델을 확립했다. PHMG 노출에 따라 미우스 폐의 구조세포 및 다양한 침윤염증세포들 모두에서 미토콘드리아 산화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DNA 손상 및 생합성 이상 등이 관찰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우스에 강력한 미토콘드리아 산화스트레스 억제제를 투여한 후 PHMG에 의해 유발된 치명적 폐 손상 및 폐섬유화가 뚜렷하게 호전됨을 밝혀냈다.

5일 연구팀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이용철 교수·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정재석 교수 연구팀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치명적 폐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마커니즘을 규명했다.(사진 원쪽부터 정재석·이용철 교수.)

홍수중 교수팀과의 협업을 통한 실제 가습기 살균제 환자의 폐조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김완규 교수팀과의 협업을 통한 미우스 폐조직 단일세포전시체 및 폐섬유화 공공 전시체분석데이터의 생정보학적 분석 등을 시행했다.

미토콘드리아 산화스트레스 억제제 투여가 PHMG에 의해 유발된 미토콘드리아 소포체를 포함하는 세포내소포체를 확장하는 분자적 작용에 의해 개개

될 수 있음을 복합적으로 증명했다.

이용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단 가습기 살균제 유발 폐손상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머지않은 미래에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성 유해물질 관련 폐손상에 대한 위험성을 재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잠재적 강력한 치료 표적으로서 미토콘드리아 산화스트레스가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증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재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북 대병원과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상호 연계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특히 전북대 본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연구 성과를 이끌어 내는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철·정재석 교수팀은 공동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혁신성 물질 및 호흡기인증비오더스를 포함하는 김영원 노출과 관련된 다양한 폐질환의 병인연구 및 관련 치료제개발 전임상연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형 늘봄학교
모델 개발 머리 맞대
도교육청, 늘봄 협의체 개최

전북형 늘봄학교의 늘봄 모델 개발을 위해 교육지원청 늘봄 업무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6일 창조나래(별관) 1회의실에서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역 늘봄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늘봄 협의체는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시·군 특성에 맞는 늘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4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매월 진행되는 협의체에서는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준비를 위한 협업과,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거점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약 분담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면서,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늘봄 협의체 운영과 더불어 타지역의 늘봄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해 도내 14개 시군 특성을 반영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돌봄교실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실히"면서 "지자체는 물론 지역별 돌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학급 본격 운영

도교육청, 오늘 설명회 열고 역할·실천 방안 등 안내
학교 문화 생태적 전환 '탄소중립 실천학교' 확산 목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천학급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5월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탄소중립 실천학급으로 108개교에서

298개 학급을 선정, 6일 창조나래 시청각에서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학급은 탄소중립 실천학교의 전 단계로 학급 중심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생활 속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학급 문화의 생태적 전환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학생 주도적인 탄소중립 참여와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교 전체 문화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탄소중립 실천학교'로의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학급 운영 방향 설명과 학교 내에서 탄

소중립 실천학급의 역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을 안내한다. 이는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담당교사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희망 학급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급의 특성을 살린 203개의 탄소중립 실천학급 사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탄소중립 실천학급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이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로 향하는 상상
한걸음 발견의 시작

과학교육원 특별기획전

전북도교육청과 학교유아(원장 김정숙)이 청의적인 사람들의 생각법을 염ぶ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5일 과학교육원에 따르면 올해 첫 번째 특별기획전인 '미래로 향하는 상상 한걸음 발견의 시작'을 개막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전시체험관 1층 특별기획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관찰하기·상상하기·단순화하기·예측해보기·공간 이해하기 등 5개의 공간에서 위대한 과학자·예술가들의 사고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역사와 바운 과학자·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한 화가·음악가들의 생각하는 방법 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수동적 '보기'가 아닌 적극적 '관찰'을 통해 청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의 과정을 찾아가는 데 의미를 두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특별기획전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매일 6회씩(각 회당 45분 체험) 현장 접수로 운영되며,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과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남천현 총장

학생회 초청 오찬 간담회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이 5일 학생회 임원 20여명을 대학 인근 음식점으로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2023학년도 전주캠퍼스 종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대학 본부의 협력을 비롯해 학생들의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남천현 총장은 학생회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학생회의 노력도 당부했다.

신광희 유이특수교육과 4년) 총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학생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이 5일 학생회 임원 20여명을 대학 인근 음식점으로 초청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에 남천현 총장은 "대학의 주인은 바로 학생 여러분이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장을 대변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총 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과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언제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과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며, 언제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리적, 정서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치료 지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방원학교 학생 위한 치료지원 상호 협력

전주대 예술심리치료학과, 전북대 어린이병원 한누리학교와 협약

의 사랑 및 기타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방원학교 학생들을 위한 음악 치료 및 무용/동작 치료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소혜진 학과장은 "우수한 기관에서 재학생들이 역량 있는 예술치료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방원학교 학생들이 창조적 예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누리병원학교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치료 지원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 협력체계 확장에 기여하는 협약이다.

전주비전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사업 선정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202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및 전공 실무능력을 배양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올해 사업에서 총 12명의 학생들이 선정, 특히 '창업 트랙 우수대학'으로 뽑혀 추가 국고지원금을 받는다.

글로벌 현장학습에 선발된 이들은 1인당 최대 1,200만원 이내의 정부 및 대학의 지원을 받아 올해 2학기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 16주간 현지 적응 교육 및 병원 등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